



친애하는 제주 섬에 시각예술로 띄운 연서

서귀포시 3개 미술관 공동 '섬을 사랑한 예술가들' 전 제주를 보는, 제주에 비친 작가 9인 시선 속 삶과 풍경 내달에는 전시 연계 세미나



이중섭미술관에 전시될 김보희의 'The days(그날들)' (천 위에 채색, 2014).

이번엔 '섬을 사랑한 예술가들'을 불러냈다. 개관순으로 서귀포시 지역 3개 공립미술관인 기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이 이달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 동안 펼치는 두 번째 공동기획전이다.

'문화도시 서귀포'의 도심에 자리잡은 3개 공립미술관은 공간별 2~4명씩 작가를 초청해 집중적으로 그들의 작품 세계를 살피도록 했다. 제주 토박이 작가, 서귀포 등에 정착해 활동하는 작가 등 모두 9명으로 이들은 저마다 다른 '필체' (작업 방식)로 제주 섬을 향한 '연서' (작품)를 써 내려갔다. 그 연서가 꼭 달콤한

것은 아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는 구애를 외면한다면 그 사랑의 끝은 쓰리다.

기담미술관은 '친애하는 나의 섬에게(Dear My Island)'란 이름을 달고 윤진구(회화), 김승환(영상),

양화선(회화), 김승민(회화, 디지털 페인팅) 작가를 초대했다. 돌하르방과 야자수, 해녀와 바다, 도시와 일상 등 예술가 4명의 시선에 비친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

이중섭미술관은 '이향(異鄕)의

품'을 주제로 기획전을 준비했다. 제주에 동지를 둔 지 10년이 넘는 김보희(회화), 이명복(회화) 작가는 태초의 세계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이 섬에서 얻은 영감을 표현한다.

소암기념관은 권세혁(회화), 김현철(회화), 조운득(조각) 작가를 통해 제주 색다른 자연을 바라보려 했다. '섬에 뜬 달과 물과 돌'이란 전시 제목에서 채움보다 여백이 절실한 제주 자연의 현실을 떠올리게 된다. 제주 하늘과 바다와 땅이 전하는 이야기가 평면이나 입체에 담긴다.

서귀포시는 공동기획전과 연계해 6월 중 '제주 바다를 건너 문화·예술인' 주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전시 관람 기회도 제공한다. 통합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3개 미술관의 전시를 모두 관람해 스탬프를 받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 관람하려면 각 미술관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현장 발권은 잔여 인원 시 가능)해야 한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케이아트무용단의 '잠시'.

춤을 출 수 있다면 매일이 새로운 날

서귀포예당·예종 기획 케이아트무용단 우수작

일상의 힘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의 이야기가 춤에 담겼다. 서귀포 예술의전당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동 기획으로 6월 2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당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다시 주는 춤, 함께 주는 춤'이다.

이번 제주 공연엔 케이-아트(K-ARTS)무용단이 함께한다. 케이아트무용단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무용원 교수진, 예술사와 예술전문사 재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무용단의 우수 레퍼토리를 골라 제주 관객들과 만난다. 정재혁이 안무한 '언더스탠드(Under-

stand)'와 김삼진이 안무한 '잠시', '나비의 꿈', '동해랩소디', '출정' 5편을 볼 수 있다.

'언더스탠드'는 '이해'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한 작품이다. '잠시'는 전통 리듬의 흐름 가락을 모티브로 똑같으나 똑같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낸다. '나비의 꿈'은 희망의 빛을 찾아 날아가는 나비를 춤으로 형상화했다.

관람료 무료. 코로나19 거리두기로 210석만 개방한다.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민에 한해 서귀포시 E-티켓으로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서귀포시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생중계도 이뤄진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쫓지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주아트센터가 동명의 영화로 익숙한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초청 공연을 갖는다.

6월 11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동네 바보, 가수 지망생, 평범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공작 요원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입장권은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A석 1만원으로 현재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진행되고 있다. 문의 728-1509.

어린이 '해녀' 온라인 교육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 해녀'를 주제로 도내 어린이 대상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2021 창의야 나랑 놀자-꼭꼭 박물관' 6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알아보고 매듭공예 방

식을 이용해 해녀 킴을 만들어 본다. 모집 정원은 50명으로 이달 25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꼭꼭 박물관'은 앞으로 7월 '제주의 고래', 8월 '제주의 새', 9월 '제주의 나비'를 주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 710-7698.

오키나와 전통무용 교류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6월부터 '제주-오키나와 한·일청년 전통무용 교류'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전통문화를 매개로 교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제주도는 '물허벅춤' 등을 참신한 형태로 보여줄 대학생 전통무용팀을 공모로 선정한 두 지역 청년들의 공연 장면은 SNS로 공개되고 오리엔테이션, 성과 공유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참가팀 모집은 이달 27일까지 이뤄진다. 4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하면 된다. 문의 800-9155.

도·제주도문화원연합회 '봉개동 역사문화지' 발간

숲이 건네는 말, 음악으로 나눕니다

제주도와 제주도문화원연합회(회장 강명인)가 진행하는 '제주 등 역사문화지' 편찬 사업으로 '봉개동 역사문화지'가 나왔다.

10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묶인 이번 역사문화지는 등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출간됐다. 봉개동 지역과 관련해 간행된 연구 성과를 참조하고 현지 방문에서 얻은 조사 자료에 근거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역사문화지는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인문·자연환경, 마을역사, 지명유래·비석, 행정, 교육, 종교·민간신앙, 산업·교통, 무형유산, 생활사, 관광·문화, 봉아름 사람들 살아온 이야기가 차례로 펼쳐진다.

봉개동은 조선시대 제주의 지성인으로 추앙받았던 김진웅 선생이 정착해 훈학을 널리 펼친 마을이다. 지금은 4·3평화공원과 제주절물휴양림 등이 들어섰고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자생지를 간직한 마을로 제주 역사와 자연을 만날 수 있다.

비매품. 연락처 752-0302.

전선희기자

자작나무숲 '숲속 콘서트' 5년째 지역 특화 사업 선정 올해 10회 걸쳐 공연 예정

숲이 건네는 위로의 음악이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에게'란 이름을 단 숲속 힐링 콘서트다.

이번 콘서트는 제주에서 '숲속 콘서트'라는 형식을 만들어 온 음악단체 자작나무숲이 주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서귀포산림휴양관리소가 후원하는 '2021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올 한 해 총 10회에 걸쳐 푸르른 숲을 배경으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치유의 음악회를 펼친다. 자작나무숲의 숲속 힐링 콘서트는 이번이 5년째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기간 동안 해를 거르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올해는 특히 숲이 일깨운 환경 문



자작나무숲의 '숲속 힐링 콘서트'. 올해는 '자연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에게'란 이름으로 10회에 걸쳐 공연이 예정됐다.

제를 관람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작나무숲은 지난 4월 색달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뮤지컬비디오를 찍은 일도 있다.

5월 콘서트 일정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서귀포치유의숲, 30일 오후 2시 사려니숲으로 짜였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마림바, 아코디언, 플루트 등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의 멜로디', '시간을 넘어서', '오

버 더 레인보우' 등 귀에 익은 음악을 편곡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그립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간다'를 음악으로 편곡해 연주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이달 현장 관람객은 사전 예약으로 이미 인원이 차지만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공연 실황을 중계할 예정이다. 자작나무숲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748-5885. 전선희기자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지금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주택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